

예 배 순 서

1부 08:30 AM
2부 11:00 AM

2021년 6월 27일 인도: 김정국 목사

경배와 찬양 <small>Praising</small>	다	같	이
* 예배의 부름 <small>Call to Worship</small>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small>Confession</small> 사도 신경	다	같	이
* 성 시 교 독 <small>Responsive Reading</small> 교독문 76. 요한복음 1장	다	같	이
찬 송 <small>Hymn</small>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다	같	이
기 도 <small>Prayer</small>	전	승	평 장로
성 경 봉 독 <small>Scripture</small> 전도서 12:13-14	인	도	자
찬 양 <small>Choir</small>	다	같	이
말 씬 <small>Sermon</small> 사람의 모든 것	김	정	국 목사
찬 송 <small>Hymn</small>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다	같	이
헌 금 기 도 <small>Prayer</small>	김	정	국 목사
헌 금 <small>Offering</small>	다	같	이
알 림 <small>Announcement</small>	김	정	국 목사
* 찬 송 <small>Hymn</small>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다	같	이
* 축 도 <small>Benediction</small>	김	정	국 목사

* 표는 다같이 일어서서

오늘의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13)

말씀아침 새벽본문	28(월)	29(화)	30(수)	1(목)	2(금)	3(토)
	사1-4	사5-8	사9-12	사13-16	사17-20	사21-23

알리는 말씀

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모임

11:00 am 주일예배(온/오프라인)
2:00 pm 선교교회모임(온라인)/ PTA 모임(온라인)

주중일정

(월) 8:00 pm 정기운영위원회
(화)~(금) 5:45 am 새벽기도회
(수) 8:00 pm 성경공부 인도자 모임(온라인)
(목) 3:00 pm 제자반 훈련(온라인)
(금)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II(온라인)
(토) 10:00 am~1:00 pm 교육부 성서학당

다음주 행사

11:00 am 주일예배(온/오프라인)

기타사항

1. 교육부 여름방학 <어린이 성서학당>을 위해 계속 기도 바랍니다.
2. 오늘 주일부터(오전11시) 교육부 예배를 대면으로 모입니다(유치부 추후 공지).
3. 7월부터 주일1부 예배도 대면예배로 다시 모입니다.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4. 2021년도 상반기 감사가 7월 5일과 11일 두 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5. 오늘 친교는 이준세 집사(이옥자 권사)님 가정에서 손주 출생을 감사드리며 마련 하였습니다.

강단의 꽃

김성진 집사(남편생일)

* 다음주 예배 및 봉사위원

- 안내: 정윤권 장로 노진희 권사
- 헌금: 이재희 장로
- 기도: 최준택 장로

5월 31일~6월 13일 주일 헌금

우상철 조현식 한은희 박지환 이옥자 김정화 김대욱 박정금 조형숙 정윤권 손상근 이보람 이수정 한윤정 우상철 전승평 이준세 정윤권 한윤정 장규성 한상모 김성진 조지연 한윤정 이용삼 김정국 김길봉 박부명 이영길 이재희 전승평 정윤권 최준택 최형영 김상규 김순자 김준영 김진호 박인서 박지환 방인덕 손상근 양명국 우상철 윤방지 이보람 이상길 이수정 이영일 이을승 이준세 이찬희 이홍자 임동규 정진원 채민병 한상모 전재영 무 명

*같은 항목 중복은 한 번만 기록하였습니다.

<완화된 교회 오픈 안내>

1. 예배참석신청: 신청없이 참석(자가진단필수)
2. 주중모임: 현재 온라인 모임 당분간 유지
3. 6ft 거리두기: 백신접종자 한하여 한 자리 간격
4. 마스크착용: 예배 및 대그룹 모임 마스크착용
5. 점심교회 및 교제: 식사 없이 간단한 커피교제
6. 건물출입문 운영: 주일오픈(Unlock), 주중제한오픈
7. 주일1부 및 교육부 예배: 단계적재개 목표로 준비
8. 찬양대 및 찬양팀: 백신접종자 중심으로 단계적재개 *CDC 방역지침 참조

파송선교

중동B

1불선교

브니엘다민족교회
트리니티 한인학생회
밀알선교회
시카고 워십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이 아닌 '허무'로 이끄실 때

성경은 결핍을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허무'라고 표현합니다. '허무함을 느낀다'는 말은 '삶의 구멍을 채우고 싶다, 삶의 결핍을 채우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 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족이 아닌 결핍으로, 충만이 아닌 허 무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허무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 까요? 왜 바로바로 채워주지 않으시고 텅 빈 지갑과 공허한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 요? 허무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 속에 솟아나는 새로운 아 이디어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허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하나님의 강력한 개입 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허무를 피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 속에서 새로운 지혜가 솟아날 거라고 약속합니다. 허무는 불청객입니다. 초대 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내 삶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허무를 선불리 내쫓으려 하면 안 됩 니다. 하나님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허무를 느끼게 하실 때는 좀 더 진지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허무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허무 속에 머무르 게 하실 것입니다. 머무름이 없는 허무는 허무로 끝납니다. 하지만 충분한 머무름을 통과 한 허무는 삶에 새로운 시각을 선사합니다. 허무함이 찾아온 삶의 영역이 있다면 이제 기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지혜, 새로운 아이디어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세대마다 각자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젊어서 힘들고 노년은 노년이라서 어렵습 니다. 고민의 종류는 다르지만 각 세대에 나타난 위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경험 해본 적 없는 위기'속에서 허무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배들이 하던 방식대로, 내가 세운 철학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의 위기, 급격한 변화 속에 찾아오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잘해왔던 방식이 통하지 않기에 자신의 과거가 무용지물 되어버렸다 고 느낍니다. 모든 걸 잘 해왔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새로운 위기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젊은 세대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 찾아가고 있는데 생각도 못한 위기가 나타난 것입니 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취업이 될 줄 알았습니다. 돈을 적당히 모으면 결혼을 쉽게 할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 가면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연스레 풀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준비가 되면 쓰임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신앙 서적 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었는데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기 앞에 서니 모든 것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모보다 내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많이 경험한 부모 세대도 돌발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 선배 들이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자 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병과 싸웠습니다. 열심히 가난과 싸웠습니다. 적당히 일하다 퇴 직하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는 빨라지고 남은 삶은 길어집니다. 기존의 기술과 경력으로 다른 직장을 잡아보려 했더니 시대의 변화는 너무 빨라서 나의 경 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많은데 필요없는 경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했던 일을 컴퓨터가 합니다. 병과 가난이 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는 긴 수명과 노후 생계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싸워왔던 방법이 통하지 않을뿐더러 싸움 의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중년도 새로운 위기를 경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중년 의 허무는 그 농도가 더 짙습니다. 살아온 삶이 길어질수록 허무함의 깊이도 깊어지만 갑 니다. 전도서 저자는 우리에게 대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걸기 위한 질문입니 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서 자신의 삶으로 답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전도서 저 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같은 질문을 품고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 님의 설명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전도서를 펼쳐야 합니다. 허무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치 열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서창희,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중에서-

가정예배 6월 넷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기도 |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지혜의 시작과 기초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족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지혜를 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내 이름 아시죠)

함께 읽기 | 아래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잠언 30:1-17

함께 묵상 |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아굴은 왜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고 고백했을까? 아굴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2-3절)?
2.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아굴의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7-8절)?

함께 나눔 |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출처: 성서유니온선교회>

CANAAN CHURCH

가나안교회는 선교·교육·봉사를 목표로 1976년 11월 28일 나일스 지역에 세워져, 말씀과 신앙,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로교 전통의 독립교회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05:45
금요일예배	저녁 08:00
선교회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모임	매월 셋째 주

교회학교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01:00
금요모임	저녁 08:00

청년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저녁 08:00

부속

라인댄스반	목요일 오전 10:00
가나안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09:30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이용삼	847-724-2456
담임목사	김정국	224-577-5229
전도사(유치)	이수정	224-587-3815
전도사(유년)	서줄리	224-612-1315
전도사(Youth)	김태중	224-727-9830
지휘자		1부
		2부
파송선교사	양선한 허목자(중동)	

찾아오는 길



1255 N.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TEL: 224-735-2346 www.canaan.org

CANAAN CHURCH

